

요양병원 강제철거...한겨울 환자들 어떡하라고

르포 광주 북구 임동 그린요양병원 가보니

작년 임대기간 만료...식당 폐쇄 도시락으로 대체
국민청원 호소...“최소한 배려·이주대책 마련해야”

전남방직 부지에 입주한 요양병원 중
증환자들이 법원의 강제 철거 집행에
한겨울 도시락으로 허기를 달래며 고통
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집행요원들이 병원 내 조리시설
을 모두 뜯어내 강제 압류하면서 식당
이용이 전면 폐쇄됐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에 입원중인 무연고 환자들
은 전남방직 개발을 앞두고 갈 곳 마저
없는 처지에 놓이는 등 최소한의 배려
와 이주대책 보장마저 받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지난 8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임동
에 위치한 그린요양병원.

이날 점심시간이 막 지났음에도 고소
한 밥 내용과 따뜻한 국 냄새는 풍기지
않고, 각 병실 문 앞에는 환자들이 먹고
남은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병실 내부로 들어서자 아직 식사를
마치지 않은 한 어르신이 숟가락을 들
고 있었고, 일회용 배달 용기에 들어 있
는 밥과 국은 다 식어 딱딱하고 차가웠
다.

옆 병상의 환자는 식사 시간임에도

옆으로 쭈그러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
고, 바닥에는 먹다 남은 죽이 담긴 용기
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센 80대 어르신 환자
는 식사를 막 마치고 소화를 시키기 위
해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복도를 걷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한 어르신은 “살면서 이
렇게 오래 도시락만 먹어본 적도 처음
이다”며 혼잣말을 읊조렸다.

현재 그린요양병원에는 300여명의
중증·치매 환자가 생활하고 있다. 치매
환자 80여명, 중증환자 150여명, 보호
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무연고환자 30
여명으로 당장 몸도 가눌 수 없는 지경
에 놓인 환자들이 상당수다.

전남방직은 지난 2020년 6월 세입자
들과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연
장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도 소송
을 제기한 전남방직은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을 받고 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29일까
지 3차례에 걸쳐 병원장실·행정실·식

당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병원에 입원중인 한 환자의 보호자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상의 아버지께 따뜻한 국물과 밥 줘
드시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
리기도 했다.

약 한 달 전부터 병원에서 아버지를
직접 간병하고 있다는 그는 “안정된 식
사는 쇠약한 환자에게 치료의 한 방편
이며 식당은 환자들의 생명줄”이라며
“추운 겨울에 환자들의 국과 밥을 대울
수 있는 임시 주방이라도 만들 수 있도
록 최소한의 배려와 대책을 기대한다”
고 호소했다.

이날 요양병원 관계자는 “폭력적인
철거 현장을 지켜본 환자들은 물론 직
원들 상당수가 불안 증세로 정신적 후
유증을 보이는 상태”라며 “소화 불량으
로 일반적인 식사가 어려운 중증 치매
어르신들이 태반인데 간단히 음식을 데
울 만한 임시 주방이구라도 들고오자
하지만, 병원 곳곳에 감시원이 배치돼
이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
다.

안수기 그린요양병원 병원장은 “식
당을 폐쇄하는 것은 중증환자들의 생
명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마찬가지”라
며 “안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내부 사
정을 봐서 시간을 좀만 더 달라는 것
뿐인데 아직 환자들이 머무르는 병원
에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
거를 진행해야만 하는 급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



지난 8일 오전 개발을 앞둔 광주시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내 그린요양병원 식당이
법원의 강제 철거 집행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환자들이 외부에서 사들여온 도
시락을 먹고 있다. /김생훈 기자

다.

한편, 광주시는 북구 임동에 전남방
직(16만㎡)과 일신방직(14만㎡) 부지
의 재개발을 추진중이다. 광주지역 근

대산업 유산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부지를 특급 호텔과 복합문화사
설 등 전략적 중심상업지구 개발할 계
획이다. /김민빈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나주	순천	광양
-2~9	-5~8	-1~11	0~11
목포	-1~6	여수	2~9

일출 07:41 일몰 17:39
월출 12:30 월몰 00:39

장성	-5~8	흑산도	4~7
담양	-5~9	구례	-4~10
화순	-5~9	곡성	-5~9
영광	-4~6	완도	0~9
함평	-4~8	강진	-3~9
무안	-4~6	장흥	-4~10
영암	-5~8	해남	-5~7
진도	-1~6	고흥	-4~10
신안	-2~6	보성	-5~10

목포	만조 07:48 20:08	여수	만조 02:34 14:47
	간조 00:39 12:53		간조 08:17 21:22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형수 둔기 폭행 무속인 항소심 실행

‘이삿짐을 빨리 빼라’는 형수의 말에 격분해 등을
둔기로 내리친 60대 무속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
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
고받은 A씨(60)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
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1시50분께
전남 한 주거지에서 형수 B씨(63)에게 욕을 하고 둔
기로 등을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는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각화도매시장, 코로나에도 거래 늘어

광주시 중앙도매시장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은 지
난해 총거래량 2억 2,500만톤, 총거래실적 4,350
억 원을 기록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거래가 증가했
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9%, 9.4% 증가한 수치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늘고 외식 자제로 인해 식자재
소비가 감소하는 등 도매시장의 농산물 반입량이 많
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화도매시장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로 직접 출하홍보활동을
나서고, 도매시장 시설 보수, 매달 청소의 날 실시 등
적극적인 유지활동을 펼쳤다. /오선우 기자

‘나주 모녀 사망’ 아버지 살인 유죄

딸 숨지게 한 뒤 부인과 극단적 선택 시도

법원이 ‘나주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7일 살인, 자살 방조 혐의
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
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
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

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했
다.

수사기관은 이들 부부가 경제적인 어
려움으로 이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
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부부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약을 먹고 동반 자살
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으며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다.

질식사한 8살 딸의 몸에서 A씨의 유
전자(DNA)만 검출된 점, 아이한테도
신경안정제를 해열제에 섞어 먹인 점도
A씨의 살인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가장 믿었던 아
버지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했고 아내의
자살을 막지 않고 정신적으로 도왔다”
며 “더는 대출판을 방법도 없고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
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진도 어선 충돌사고 실종 선장 숨져

목포해경, 선내 조타실서 발견...4명 구조

진도 장도 인근 해역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한 사고 여파로 실종된 선장이 숨
진 채 발견됐다.

9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날 오전 11시 57분께 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실종됐던 70대 선장이 선내 조
타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후 1시 12분께 진도 장도 북
동쪽 3.5km 해상에서 5명이 타고 있던
9.77t급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A호와
72t급 근해안강망 어선 B호가 충돌해
A호가 전복됐다.

A호에는 5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
아인 1명, 베트남인 1명)의 선원 등이
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
명은 사고 직후 해상에서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고, 3명은 해경이 뒤집힌
어선의 선체를 뜯어내 구조했다.

마지막 실종자인 선장을 찾지 못한
해경은 여러 차례 수중 선내 진입을 시
도하고, 경비함정을 동원해 해상 수색
을 펼쳐 조타실 안에서 숨져있는 선장
을 발견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목포로 인양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김동균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룸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룸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